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벽) 09:30(중고등부)	
		10:30 (교중) 10:30 (초등부 소성전) 12:00 (낮)	
		16:00(국제미사) 19:00 (청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알 림

- 봉성체 : 2/9(금) 오전 9시부터 합니다.
- 교구 새사제 첫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7(수) 19:00 / 대성전

* 전신자 성경쓰기 *

- 기 간 : 2/1(목)~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 '하느님 사랑하기'의 실천으로 '전신자 성경쓰기'를 실시합니다.
- (처음 사용하는 쓰기노트는 1회에 한하여 분당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후 성물방 판매))
- ※ 성경쓰기를 하시는 신자분들은 2/4(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쓰기노트를 받아 가십시오.

● 재의 수요일 안내 : 2/14(수)

-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절을 거행합니다.
- 성지가지 수거 : 성지는 성전입구 수거함에 2/11(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안내

06:30(새벽) 저녁 7시

- 사순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은 매일 아침, 저녁 미사 40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 祝 세례식 및 피정

피 정	2/4 (오늘)	10:30 미사 후 ~ 16:30
세례식	2/11(일)	10:30 교중 미사 중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위령봉사회 월례모임	2/4(일) 12시	지하강당
· 임원모임 (반, 구역장, 형제회장, 시목위원)	2/7(수) 저녁 8시	지하식당
· 꾸리아 월례모임 10u	2/11(일) 오후 2시	지하강당
20u	2/11(일) 오후 2시	소성전
30u	2/11(일) 오후 4시	지하강당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와 영성강좌, 안수
 - 일 시 : 2/5(월) 오전 10시~ 12시
 - 주 제 : "십자가"
 - 강의 및 미사집전 : 김보록 바오로 신부님
- 16지구 구역장·반장 월례연수
 - 일 시 : 2/13(화) 오전 10시 30분 시작
 - 장 소 : 고척동 성당

● 태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2/24(토) 저녁 7시 토요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복사 및 해설, 말씀 전례봉사자 모집

- * 거룩한 미사 전례 봉사를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복사전례 문의 : 최영만 베드로 010-5254-1773
- 해설 문의 : 이인옥 베로니카 010-7688-9325
- 말씀전례 문의 : 박혜선 올리안나 010-9291-7415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 2/16(금)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성전에 비치한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설날(2/16) 미사 시간 아침 06:30, 낮 12:00, 저녁 19:00

- 낮 12시 미사 후 세배와 나눔이 있습니다.
- 나눔/세배 : 지하식당 / 지하 강당

● 청소년 분과

- 2018년도 유·초등부 미사시간 변경
 - 동아리 활동 : 11시 / 미사시간 : 12시
 - 시작일시 / 장소 : 2/4(오늘) / 소성전
- 2018년도 중·고등부 미사시간 및 장소변경
 - 부서 활동 : 9시 / 미사시간 : 10시
 - 시작일시 / 장소 : 2/18(셋째주일) / 소성전
- 새청년 환영회
 - 일시 : 2/11(일) 오후 7시 (청년미사 후)
 - 장소 / 대상 : 지하강당 / 본당의 모든 청년
 - 문의 : 곽정희 마리스텔라 010-3785-8617
 - ※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면, 그 손 저희가 덥석 잡겠습니다!!

●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

- 일 시 : 2/9(금) / 저녁 8시
- 장 소 : 피정방
- ※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모임입니다.

● 구역미사 안내

- 전반기(3~6월) 한번, 후반기(9~12월) 한번 구역과 성당(지하강당)에서 연간 두 번 거행됩니다.
- 구역, 반모임, 형제모임은 구역별 실시합니다.

● 다음 주일(2/11)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7구역	청 소	9구역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성체 분배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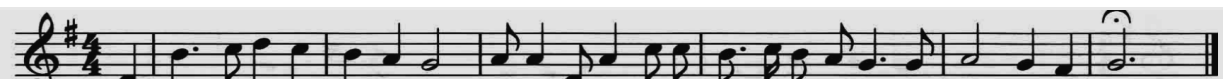
날짜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 7시
2/4	박형순	박승환	손상민 김광수 박용환	박형순	김인기
2/11	장인홍	박승환	김인기 박형순 최석준	황태영	최승일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2/4	정은주	심재순 김영길 조흥환 신종구	허문석 손정주
2/11	이인옥	김현철 최상림 임공섭 하재민	안상록 김강자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8,137,000원
- 주일헌금 6,636,450원
- 오라토리요를 위한 2차 헌금 1,968,200원
- 감사헌금 장욱자 5만원 김수자 5만원 신기자 5만원
 박정숙 5만원 오명석 5만원 익 명 30만원
 이석윤 10만원 김○○ 10만원

회합송 

주 님 을 찬 미 하 여 라 주 님 은 마 음 이 부 서 진 이 를 고 쳐 주 신 다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 위령봉사회(연령회) 회원 모집

- 돌아가신 영혼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고 가족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봉사를 함께하실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 연령회장 : 박노옥 안드레아 010-5294-6243

* 성당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당부 말씀 *

- 성전안에서는 **핸드폰 끄시고, 침묵,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참례는 최소한 **말씀의 전례 전에 입장 하시고 마침 성가 후 퇴장**하셔야 온전한 미사참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실 경우에는 **다음 미사 참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전액 무료)

- 오라토리오 봉사자를 찾습니다 !
- 시 간 : 15시~18시까지
- ※ 놀이 교재가 필요합니다. (레고, 블록, 도미노, 초등학교 학습교재, 참고서, 익힘 책)
- 후원금계좌 : 신 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국 제 미 사

- 영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6시 / 교육관(소성전)
- 중 국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1시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한 국 어 교 실

- 일 시 : - 화, 목요일 저녁 7시 (19:00)
- 수, 금요일 오전 10시30분 (10:30)
- 토, 일요일 오후 1시 (13:00)
- 장 소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어를 가르칠 봉사자를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87. ‘공동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공동선을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26항)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목적은 선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은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은 도덕적 선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 164항 참조) 공동선은 모든 인간의 안녕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안녕으로도 특징지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먼저, 법치 국가에서처럼 국가 질서로 작동되는 전반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연적인 생활 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내에서 각 개인에게는 양육, 거주, 건강, 훈육과 교육을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선의 요구는 보편적인 인권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88. 공동선은 어떻게 생기나요?

모든 인간과 사회 집단에게는 정당한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공동선을 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복리福利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소리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재화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인간의 공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선은 모든 인간의 물질적 이거나 외적인 복리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인간의 온전한 안녕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가치를 위한 배려도 공동선에 속합니다. 인간 존재의 측면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